

지역 소식통

정읍시, 제80회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 개최

정읍시가 제80회 식목일을 맞아 시민들과 함께 내장산에 단풍나무 1000그루를 심으며 푸른 도시 만들기에 나섰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산불 예방 캠페인과 함께 펼쳐 더욱 의미를 더했다.

시는 4일 내장산 자연휴양림 일원에서 이학수 시장을 비롯한 산하 공무원과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 2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나무심기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용산동 내장산 자연휴양림 내 임야(산27번지) 1ha에 식목인 단풍나무 4년생 묘목 1000여 본을 식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더불어 시는 청명·한식 등 산불 위험이 높은 시기를 앞두고 시민들과 함께 산불예방 및 불법소각 금지 캠페인을 병행했다.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내가 심은 나무가 자라 많은 이들에게 행복을 전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나무를 심고 가꾸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제80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 개최

봄의 기운이 완연히 접어드는 길목에 부안군은 지난 4일 제80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를 부안 해돋이마루 지방정원에서 실시했다.

모두가 누리는 가치있는 숲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권익현 부안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군의회, 부안군 산림조합, 일반군민 등 200여명이 참여, 라벤더 황매화 등 2,500본의 나무를 심으며 건강한 숲의 가치와 소중함을 공유했다.

군은 또한 산불예방 캠페인 및 목재의 탄소저장 기능 등 다양한 가치에 대한 홍보를 함께 진행하며 의미를 더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최근 산불로 막대한 산림이 훼손되어 안타깝지만, 우리의 작은 실천이 회복의 밑거름이 되길 소망하며,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한 조림사업, 병해충 방제, 숲가꾸기 등 산림관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일상 복귀까지 지원 계속”

이학수 정읍시장, 산불 이재민 재방문… 위로 메시지 · 지원 의지 확인

이학수 정읍시장의 산불 피해로 임시거주시설에 머무르고 있는 소성면 이재민들을 다시 찾아 따뜻한 식사를 함께하며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 시장은 정읍시가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때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 시장은 지난 2일 산불 피해를 입어 소성면 구룡경로당에서 지내고 있는 이재민 12명을 재차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피해 주민과 현장에서 헌신하는 소성면 새마을부녀회, 정읍시자원봉사센터, 관계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연대와 지원 의지를 확인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특히 이 시장은 이재민과 봉사자들이 희망한 메뉴인 순대를 직접 제공하며 이들과 한자리에 앉아 따뜻한 정을 나눴다



이 시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싶었다”며 “피해 주민들의 상처가 하루빨리 치유되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읍시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앞으로도 피해 주민들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과 생계지원, 심리적 안정 등을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윤석열 탄핵 인용은 국민의 승리”

민주당 정읍시의원들, 탄핵 인용 결정 입장 발표

정읍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에 따른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정읍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인용 결정에 대해, 이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국민의 위대한 힘을 반영한 결과이고, 아날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승리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번 결정은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국민을 배신한 정권에 대한 단죄

이자,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기 위한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고경운 원내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정읍시의회 의원들은 입장 발표를 통해 “탄핵 인용을 계기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굳건히 하고 주민의 신뢰를 받는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며 “새로운 봄을 맞이해 정의와 상식이 바로서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2026년 국가예산 확보 위해 선제적 대응 나서

정읍시, 주요 신규 · 계속 사업 79건 선정… 본격적인 국비 확보 활동 돌입

정읍시가 지역 발전을 위한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주요 신규 · 계속 사업 79건(총 1조 631억원)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국비 확보 활동에 돌입했다.

시는 지난 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학수 시장을 비롯한 국 · 소장 및 실과소장 등 간부공무원 4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국가예산 중점사업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발굴한 신규사업 39건(총사업비 9998억원)과 기존 계속사업 40건(총사업비 6313억원)에 대한 대응계획이 집중적

으로 논의됐다. 특히 정부의 내년도 예산 편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이 마련돼 의미를 더했다.

주요 사업 중 기획재정부 일괄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공평 · 복원 국도대체 우회도로(22호선) 신설(2130억원) △철보 · 임실 덕치 국도(30호선) 개량사업(1040억원)이 일괄 예타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동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392억원) △바이오 지식산업센터 건립(365억원) △산악단

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301억원) △연지동 뉴빌리지 공모사업(250억원) △화포현 전적 종합정비(120억원) △농기계 통합센터 신축(90억원) 등 지역 발전을 견인할 핵심 사업들이 집중 논의됐다.

이학수 시장은 “정읍시 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들이 중앙부처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논리 개발과 타당성 확보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달라”며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발품행정을 통해 정부와 국회를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데 총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의회, 윤석열 탄핵 인용 결정 성명서 발표

고창군의회(의장 조만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선고 직후인 4일 고창군청 전막 농성장 앞에서 이번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에 대해 깊은 환영의 뜻을 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고창군의회는 이번 탄핵심판의 인용 결정 의미에 대해서 잠시나마 흔들렸던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전 세계에 천명하였고,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한 불법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음으로써 민주주의가 살아 있음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고창군민들은 모두가 잠 못 이루며 한마음 한뜻으로 독재와 불의에 항거하여 만들어진 오늘의 헌법을 지키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군민의 민의가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에 반영되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고창=김영식기자

고창군, 산불 피해 이재민 성금 전달

고창군이 고창 · 정읍 지역 산불 피해 이재민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일 정읍시 구룡마을화관을 직접 방문해 모금된 성금과 구호물품을 산불 피해 이재민에 전달했다.

성금 전달에는 심덕섭 고창군수를 비롯해 조만규 고창군의회 군의장 성금 모금에 참여한 고창군 기관단체장(LX고창지사, NH농협 고창군지부, 전북은행 고창지점, 고창 · 대성 · 선운산 · 흥덕 · 해리 농협, 고창신협, 고창새마을금고, 고창군산림조합, 고창자

원봉사센터, 한국전력공사 고창지사 등)이 참석하여 산불피해자들을 위로 하였다.

고창 · 정읍 산불피해 위로금 모음은 고창군청 전 직원 모금 운동을 시작으로 전 군민 모금 운동으로 확대됐다.

고창군 기관 · 단체와 전역의 각계각층에서 참여해 총 2858만원을 모았다. 이 중 성금 1358만원을 이재민의 빠른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정읍시에 기탁했고, 1500만원 상당의 기부금은 이재민들의 가전제품 및 생필품을 구



입해 전달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산불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의회, 윤석열 파면 환영 입장 밝혀

부안군의회(의장 박병래)는 지난 4일 오후 1시 30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인용 결정에 대해 “헌정사에 새겨질 역사적 사건이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켜낸 국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부안군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현재의 결정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그 누구도 헌법위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보여준 역사적 사건”이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강력히 지지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민주적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함께 해주시던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하며, “부안군의회는 앞으로도 민생의 최일선에서 군민과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안=김석진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